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유가 급등, 빅테크 급락, 미국증시 하락

- 미국증시 빅테크 중심 1~2%대 하락 마감
- 홍해 봉쇄 우려 상승, 브렌트유 100달러 재돌파
- 자본지출 확대 부담, 알파벳·테슬라 급락

Summary

미국증시 빅테크 중심 2% 내외 하락

7월 23일 목요일(현지시각) 미국 증시는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과 테슬라 등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를 보임. 중동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주요 에너지 수송로의 추가 봉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이날 투자심리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97% 하락한 51,711.65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1.21% 하락한 7,408.30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2.15% 하락한 25,137.69에 마감. 나스닥 100 지수는 1.87% 하락했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 2천 지수 역시 0.67% 하락 마감. 변동성 지수 VIX는 12.38% 급등, 18.70에 거래를 마침.

(다우 -0.97%/ S&P500 -1.21%/ 나스닥 -2.15%/ 러셀2000 -0.67%)

섹터별로는 산업재,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 정도가 상승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5.2%, 가장 크게 하락함.

트럼프 “대규모 대이란 공격 결정 임박”..브렌트유 \$100 돌파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12일째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껏 없었던 규모의 대규모 공격을 결정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해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대한 경계감을 높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온라인 매체 약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고,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고 말함. 그는 이 경우 이스라엘도 즉시 공격에 합류할 수 있다며 그로 인한 이란의 보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구상 중임을 시사.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하고 있지만 현재는 협상 체결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이란은 아직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주장, 공습이 지속될 것임을 짐작케 함.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예멘의 친 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 자신의 SNS를 통해 ‘그들이 다시 홍해에서 상선 공격에 나선다면 미국은 후티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도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앞서 홍해에서의 사우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던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로써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앞선 '장대한 분노' 작전 종료 이후 최고 수위까지 높아짐. 이런 가운데 미 연방하원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중단토록 하는 결의안을 가결. 다만 상원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부결시켜 트럼프 행정부의 현행 군사 행동 기조는 일단 유지되게 됨.

중동 지역의 이 같은 정세 불안은 결국 유가 급등으로 직결.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의 사우디 유조선 피격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등은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막힐 수 있겠다는 위기감,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이어짐. 브렌트유와 WTI 모두 5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브렌트유는 지난 5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에서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함.

골드만삭스는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운항 차질이 지속될 경우 올해 4분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설 수 있으며 내년 평균 가격도 1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

자본지출 확대, 독일까 약일까

최근 반도체주 급락의 요인이 됐던 하이퍼스케일러 자본지출 축소에 대한 우려는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테슬라의 자본지출(Capex) 지속 확대 계획으로 일단 완화됐지만 정작 자본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들 빅테크에 대해서는 우려가 확대. 이날 주요 빅테크 7개 기업 지수는 하루만에 4.8% 급락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7,970억 달러 감소함.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설비투자 비용이 폭증하며 올해 알파벳은 자본지출 전망치를 최대 2,050억 달러로 상향했고 잉여 현금 흐름은 2분기 마이너스 59억 달러를 기록함.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 82% 폭증했지만 클라우드 호실적으로 유입된 현금이 설비투자 확대에 상쇄되고 있다는 것.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올해 연간 자본지출 총액은 7천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음.

투자 비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투자 비용을 언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커지고 있음. 막대한 자금 지출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뿐 아니라 향후 늘어나는 고정비와 감가상각 비용 때문에 경기 변동시 실적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현재 주가 변동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물론 인프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자본지출 확대 경쟁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국면에 진입했음. 다만 누가 이 경쟁에서 먼저 나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최종 승자가 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의 속도와 매출, 영업현금흐름 성장세를 비교하며 쓰는 돈 대비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 비율이 확대되는지 축소되는지를 지속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57년만에 최저

이날 특별한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공개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직전주 대비 2만 2천건 감소한 18만 7천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 21만 2천건을 크게 밑돌았으며 무려 1969년 9월 첫주 기록했던 18만 2천건 이후 57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됨.

최근 미국의 노동 시장은 고용이 둔화됐지만 해고 역시 둔화돼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때문에 연준이 노동 시장보다 높은 인플레이에 정책적으로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다고도 볼 수 있음.

이런 가운데 이 날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분석에 국제금리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음.

특징종목

빅테크: 자본지출 확대 부담에 약세

전거래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7.13%)과 테슬라(-14.52%)가 이날 기술주 중심의 시장 약세를 주도함. 구글의 전분기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면에서 대체로 기대 이상이었으나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데다 향후 추가 자본 지출 확대 계획까지 밝혀 시장의 우려를 자아냄. 테슬라 역시 기록적 자동차 판매를 중심으로 전분기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마진이 악화됐고 역시 투자 확대 등이 맞물린 잉여현금흐름 감소가 투자 심리를 냉각시킴. 이날 하락으로 구글 알파벳은 시총이 4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테슬라 역시 올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11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 테슬라는 자본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에 더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양산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 또 로보택시의 대규모 확장에 안전성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경쟁사 웨이모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낙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함.

구글 관련해서는 이외 규제 이슈도 전면에 부상. 유럽연합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앱마켓 운영 방식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총 8억 9천만 유로, 약 10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문제 삼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이번 구글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은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 통상 관련 갈등 재격화의 촉매가 될 전망. 구글은 이날 스페이스X(+2.59%) 지분 약 940억 달러어치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하기도 했음.

아마존닷컴(-4.57%), 메타 플랫폼스(-3.36%) 등도 악화된 빅테크 투자심리를 반영해 동반 약세.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지출 확대는 결국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주는 대체로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20%)가 지속적 서버용 메모리 수요 강세 전망을 반영해 상승했고, SK하이닉스 ADR도 2.56% 상승. 샌디스크(+0.69%)와 웨스턴 디지털(+0.29%), 시게이트 테크놀로지(+0.58%) 등의 스토리지 기업들도 상대적 강세를 유지.

AMD(-2.29%)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투자한 스타트업 파운데이션 퓨처 인터스트리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AMD의 반도체를 활용한 군사용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도 약세. 전일 엔트로픽과 수 백억 달러 규모의 AI 서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최근 엔비디아(-1.56%)의 독주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힘을 싣기도 했음. 리사 수 AMD CEO는 현지시각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어드밴싱 AI 2026' 행사에 참석해 신형 랙 '헬리오스'를 공개하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시랙" 이라 소개했으며, 이 자리에서 엔트로픽, 오픈AI, 메타, 세레브라스 등과의 협력을 발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2.16%)가 AMD 기반 서버를 신규 제품군에 채택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인텔(-2.33%)은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 전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25.4% 증가한 16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EPS는 42센트를 기록해 모두 시장 예상을 훌쩍 웃뽀. 조정 매출 총이익률은 41.8%로 역시 예상치 대비 3% 포인트 높았음. 주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설비투자 전망치를 상향한다고 밝혔으며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회사 CFO는 다만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해 시장이 이들 테크 기업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시사했고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힘. 정규장에서 하락한 주가는 실적과 회사의 재무 계획 등을 확인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 급반등.

유가 급등: 에너지주, 전력망 등 유틸리티주 강세

지정학적 위기감 고조에 따른 주요 에너지 수송로의 연쇄적 봉쇄에 대한 우려는 화석연료 가격의 변동성으로 이어짐. 이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을 뿐 아니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다시 노크하고 있음.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미국 내 전력 소비는 보다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상황.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전통 에너지주 강세 이외에도 일부 대체 에너지원, 그리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전력망 등의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승.

엑슨 모빌(+1.58%), 셰브론(+1.75%), 코노코 필립스(+1.19%), EOG 리소시스(+1.03%), 데번 에너지(+0.91%) 등의 전통 에너지주가 상승했고 전일 호실적에도 크게 하락했던 GE 베르노바(+4.69%)가 반등. 듀크 에너지(+1.02%), 넥스트에라 에너지(+0.43%),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0.24%), 에머슨 일렉트릭(+3.77%), 센터포인트 에너지(+1.26%) 등의 유틸리티, 전력 설비 관련주가 동반 상승. 원전 관련주 중에는 뉴스케일 파워(+1.50%)

가 상승.

헬스케어: 제약, 진단주 중심 강세

헬스케어 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섹터 내에서도 제약주와 진단 관련주, 그리고 일부 의료기기 관련주가 섹터 상승을 주도함.

일라이 릴리(+1.97%)는 비만 치료제 레타트루타이드가 임상 3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강세. 일라이 릴리는 내년 1분기 중 FDA에 레타트루타이드의 생물약품 허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 전일 의료용 로봇에 대한 FDA의 승인 소식을 전한 존슨 앤드 존슨(+1.42%) 이외에도 머크(+2.36%), 애브비(+1.43%), 암젠(+1.49%) 등의 제약주가 동반 상승.

호실적에 이어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또 연간 실적 전망 상향 등이 맞물린 씨모 피서 사이언티픽(+8.71%)이 의료기기 업종에서 크게 상승했고 이외 퀘스트 다이애그노스틱스(+8.61%), 다나허(+7.46%) 등도 동반 상승.

이외 특징주

전황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 록히드마틴(+10.54%)은 트럼프 행정부 국방비 지출 증액의 영향 등으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연간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 RTX(+7.33%)도 올해 상업용 항공기 정비와 군사 장비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매출과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 이외 노스롭 그루만(+7.33%),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5.09%), GE(+2.29%), 호멧 에어로스페이스(+2.28%) 등이 동반 상승.

T모바일(-10.75%)은 요금제 개편에 따라 3분기 후불제 신규 가입자 수가 전 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가운데 급락했고 전일 호실적에 크게 상승했던 AT&T(-0.35%), 버라이즌(-1.06%) 등도 낙폭은 제한적이었으나 동반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중동 지역을 둘러싼 전운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이란과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이 나오자 호르무즈 해협에 이은 홍해 바브알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전면전 재개에 대한 우려 등이 부상하며 국제유가는 급등.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17% 상승한 배럴당 92.19 달러에 마감해 90달러선을 재차 돌파했고, 전일 94달러선까지 상승한 브렌트유 9월물은 이날 6.85% 급등해 배럴당 100.69달러에 마감. 지난 5월 26일 이후 두 달여만에 배럴당 100달러선을 재돌파.

국제 금 가격은 2% 이상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이어져 시장 금리를 끌어올림. 이에 무이자 자산인 금의 상대적 매력 감소,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금 선물은 약 2.5% 하락한 온스당 4,050.20달러에 마감. 은가격도 3%대 급락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다시 하회.

국채금리 나홀패 상승

미 국채 금리는 4거래일 연속 상승. 중동 지역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미국의 주간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집계되자 물가 상승과 고용 시장 호조는 금리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짐.

오후 들어 재무부가 실시한 10년물 물가연동국채 입찰은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에 낙찰이 이뤄져 국채금리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4.9bp 상승한 4.3470%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3.9bp 상승한 4.6932%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1.5bp 상승한 5.1595%를 기록.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장 중 4.7%를 돌파함.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주로 예정된 이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35%대로 전장 대비 소폭 높여 반영함. 오는 9월 회의에서 인상할 가능성도 70% 후반대에서 80% 초반대로 상승.

달러 가치 반등..달러-엔 164엔 육박

ECB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 나타난 유로화 약세,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라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 엔화 가치가 추가 하락한 점, 여기에 주간 고용지표 호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와 금리 인상 전망 상승 등을 모두 반영해 미국 달러화 가치는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32% 상승한 101.451으로 지난 1일 이후 3주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달러-엔 환율은 장 중 163.986엔까지 오르는 등(엔화 가치 하락) 달러 대비 40여년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며 164엔에 보다 근접함.

전일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13.30원 하락한 1,466.80원에 마감한 달러-원환율은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65원)를 감안시 9.05원 상승한 1,475.2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